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6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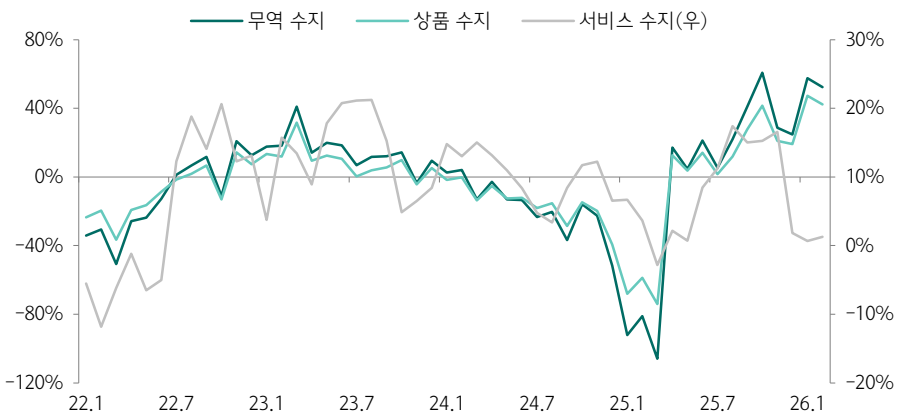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미국투자: 아직은 B2B가 더 유리

2월 미국 수출입 Update: 자본재 수입 견조, 소비재 수입은 여전히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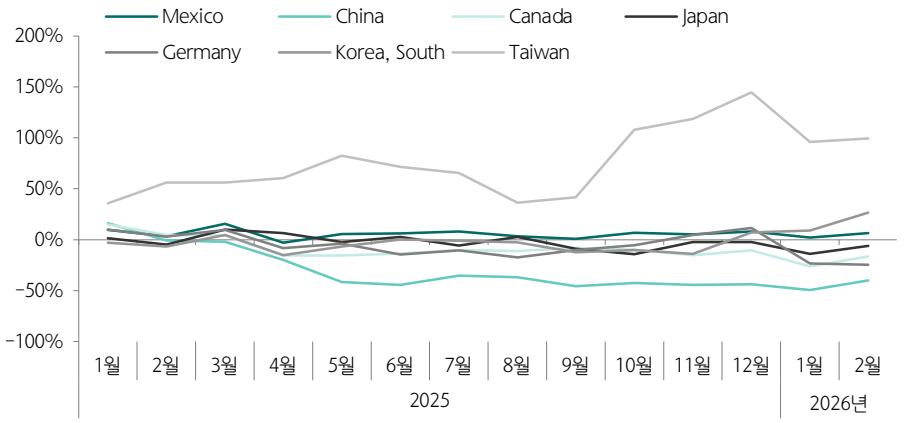
- 우리는 '[4월 미주 Pick 하나] 포성이 멈추면 필요한 것은 성장: B2C보단 B2B'를 통해 성장주 및 B2B 기업들이 투자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증시 상승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시작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하면 S&P 500과 나스닥의 EPS 컨센서스는 상향됐다. 전쟁이 미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 훼손은 아직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변수는 금리다. 2월 27일 3.96%였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30%로 34bps 상승했다. 높아진 할인율 환경에서는 성장 가시성이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AI 하드웨어들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 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573억 달러(YoY +52.3%, MoM +4.9%)다. 상품 적자는 846억 달러(YoY +42.3%, MoM +3%), 서비스 흑자는 273억 달러(YoY +1.3%, MoM -0.7%)다. 주요 5개 상품(식음료, 산업용 소재,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항목의 수입을 감안하면 투자 관점에서 B2C보다 B2B 투자가 유리해 보인다. 자본재 수입(YoY)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재 수입(YoY)은 지난 6월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 기업들이 재고 등을 적게 확보하고 있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서 미국 내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 대체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최근 제조업 생산 개선은 자동차, 전자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소비재 전반의 미국내 생산 확대가 수입 부진을 설명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 자본재 수입(YoY)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컴퓨터(+146.3%), 컴퓨터 주변기기(+44.5%), 발전기 및 주변기기(+2.1%), 통신장비(+44%) 등 데이터센터와 밀접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했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 덕분이다.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견조하다는 점도 강한 IT 하드웨어 수요를 보여준다. 2월 대만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한 물품의 금액은 전년 대비 99.5% 증가했다. AI용 반도체 설계를 미국에서 하더라도 생산은 TSMC, 조립은 위스트론, 홍하이, 콴타 등에서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생산된 하드웨어들은 다시 미국으로 수입된다.
- 주요 5개 상품 수출은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2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 산업용 소재, 자본재 등인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산업용 소재와 자본재다. 산업용 소재 중 관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한 항목은 천연가스와 비통화용 금(Nonmonetary Gold), 귀금속 등이다.
- 천연가스는 미국 정부가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한 자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등에 관세 완화를 조건으로 LNG 구매를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된 후 에너지 가격 급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JKM 선물 가격은 2월 27일 10.725 달러/mmbtu에서 4월 5일 19.965 달러/mmbtu로, Dutch TTF Gas 가격은 2월 27일 31.895 EUR/mWh에서 4월 5일 50.044 EUR/mWh로 올랐다.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2월 27일 2.857 달러/mmbtu에서 4월 2일 2.807 달러/mmbtu로 낮아졌다. 해외 LNG 판매가격은 상승했으나 미국 내 가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 금 및 귀금속은 주요 수출국 중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주요 금 정제소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전년 대비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꾸준히 전년보다 증가한 주요 자본재 세부 항목은 컴퓨터(+58.4%), 컴퓨터 주변기기(+56.6%), 통신장비(+23%) 등이다.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AI 인프라 및 플랫폼 수출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표1. (YoY) 미국의 무역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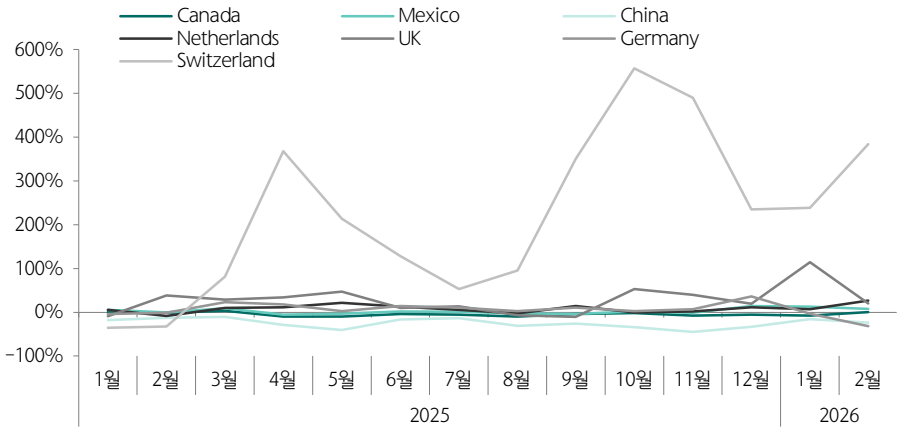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2. (YoY) 미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 증감 추이: 대만으로부터 견조한 수입 증가, 중국 수입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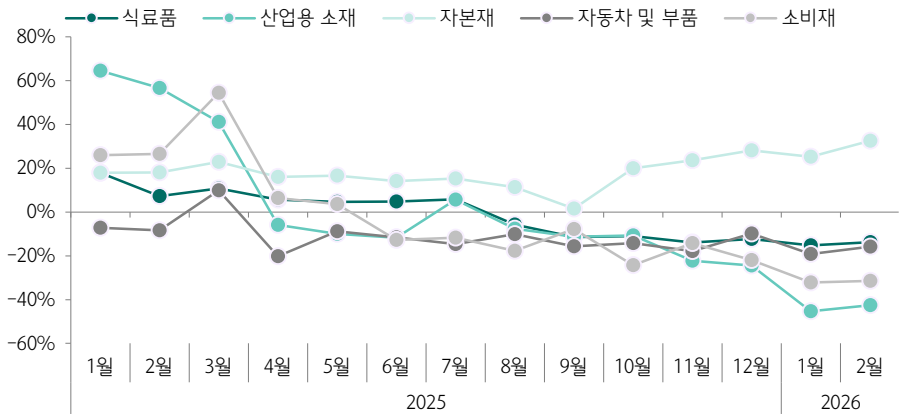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3. (YoY) 미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증감 추이: 중국 수출 두 자릿수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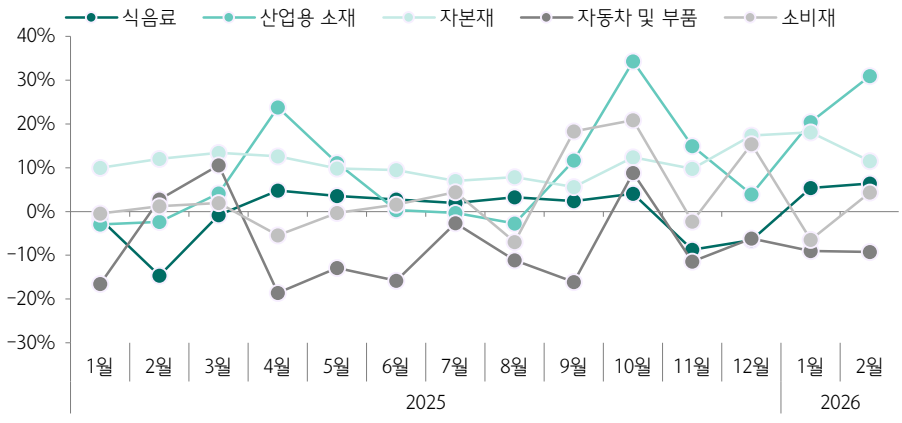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4. (YoY) 미국의 주요 상품별 수입 증감 추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자본재 vs. 감소하는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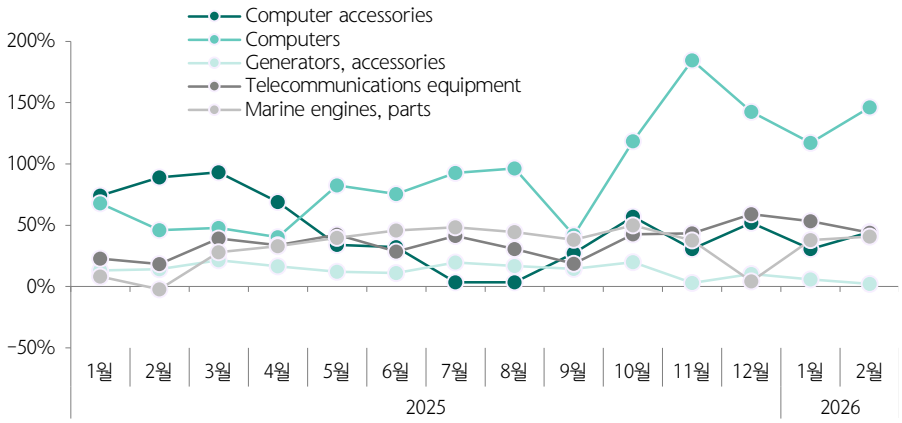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5. (YoY) 미국의 주요 상품별 수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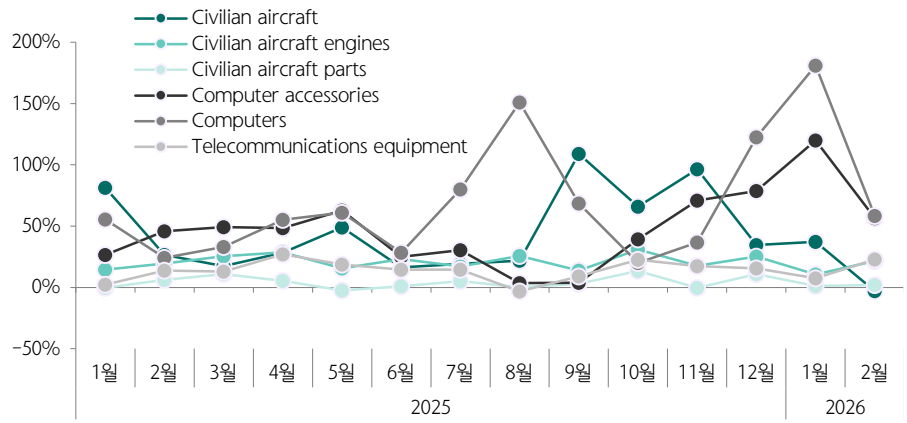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6. (YoY) 꾸준히 수입이 증가한 자본재 항목: 잠수함 엔진 제외 데이터센터 관련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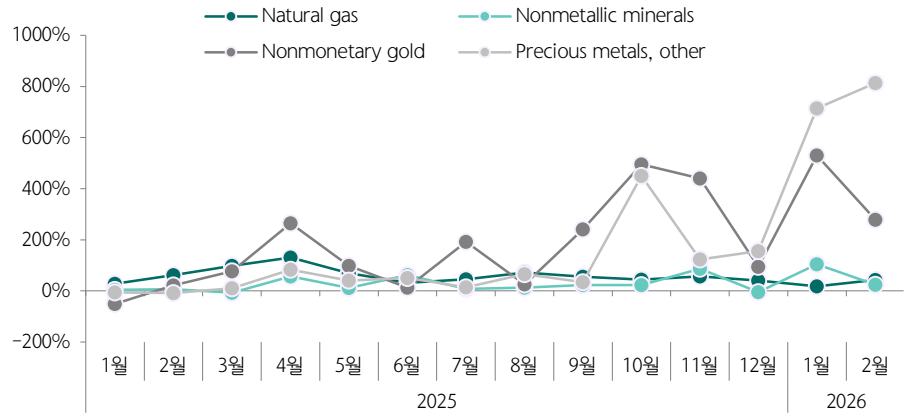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7. (YoY) 꾸준히 수출이 증가한 자본재 항목: 데이터센터 관련 & 민항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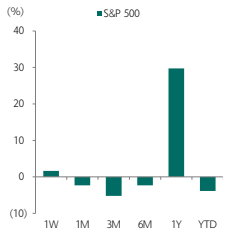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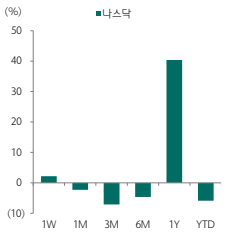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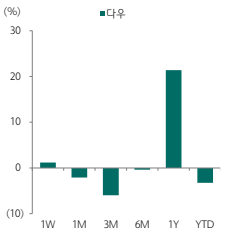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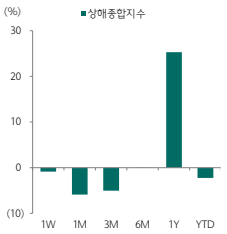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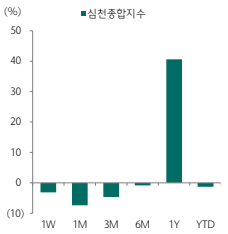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8. (YoY) 꾸준히 수출이 증가한 소재 항목



자료: Census,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6,582.7	21,879.2	46,504.7	3,880.1	2,498.4
1W (%)	3.4	4.4	3.0	0.1	-1.7
					

주) 3월 27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3월 27일~4월 3일) 리뷰: 지정학적 위기 지속되고 있지만, 기대감도 상존

- 미국증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각 지수의 수익률은 다우 +3%, S&P 500 +3.4%, 나스닥 +4.4%다. 주간 지수 등락률 기준 6주 만에 주요 3대지수가 반등했다. 전쟁 중에도 S&P 500과 나스닥 등의 EPS 컨센서스는 상향됐는데, 펀더멘털과 별개로 지속된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2.4%,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3.3% 상승했다. 변동성지수(VIX)는 23.87로 23.1% 급락했다.
- 시장참여자들의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가 가치주 대비 강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 ETF(VTV)는 각각 4.7%, 1.9% 상승했다. 우리는 '4월 미주 PICK 하나: 포성이 멈추면 필요한 것은 성장'을 통해 4월엔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적 전망은 상향됐으나, 전쟁으로 오른 것은 금리다. 금리 상승은 할인율을 높였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장이기 때문이다. 반등할 때 성장주의 상승 탄력도가 더 강하다는 점도 현 상황에서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 현지시각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다. 한국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후 변동성이 커졌지만, 미국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2~3 주 동안 강력한 공세가 있을 것임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종전안이나 협상 및 출구전략 등은 없었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증시 참여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의 영향력이 약했던 이유다.
- 에너지(-5.3%)빼고 모든 섹터가 지난주엔 상승했다. 상승 상위 섹터는 커뮤니케이션(+6.4%), 정보기술(+4.6%), 부동산(+3.8%) 등이다. 방어적 성격의 헬스케어(+2.4%), 유틸리티(+1.6%), 필수소비재(+0.7%) 등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장참여자들의 M7에 대한 매수세는 비(非) M7보다 강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비(非) M7 ETF(XMAG)의 상승률은 각각 5.1%, 2.6%다. M7 중 테슬라(-0.3%)만 하락했다(NVDA +5.9%, META +9.3%, MSFT +4.7%, GOOGL +7.8%, AAPL +2.9%, AMZN +5.2%). 테슬라의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358,023 대다(컨센서스 370,000 대). 모델 3 및 Y는 341,893 대(컨센서스 347,900 대), 기타 모델 16,130 대(컨센서스 27,150 대)다. 에너지 스토리지 제품 설치는 8.8GWh로 시장 예상치 15GWh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 지난주 엔비디아(NVDA)와 마벨(MRVL)은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마벨 테크놀러지에 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전엔 루멘텀(LITE)과 코히어런트에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엔비디아가 현재 AI 반도체 업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TSMC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공급망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광통신을 투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구리선이 가진 발열 문제와 정보 전송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번 투자 발표는 둘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마벨에겐 긍정적이다. 마벨은 이미 NVLink의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마벨은 하이퍼 스케일러 중 아마존 의존도가 높다는 시장참여자들의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주(4월 6일~4월 10일) 프리뷰: 미국과 이란 협상 여부, 통화정책 관련 경제 지표 및 연준 위원들의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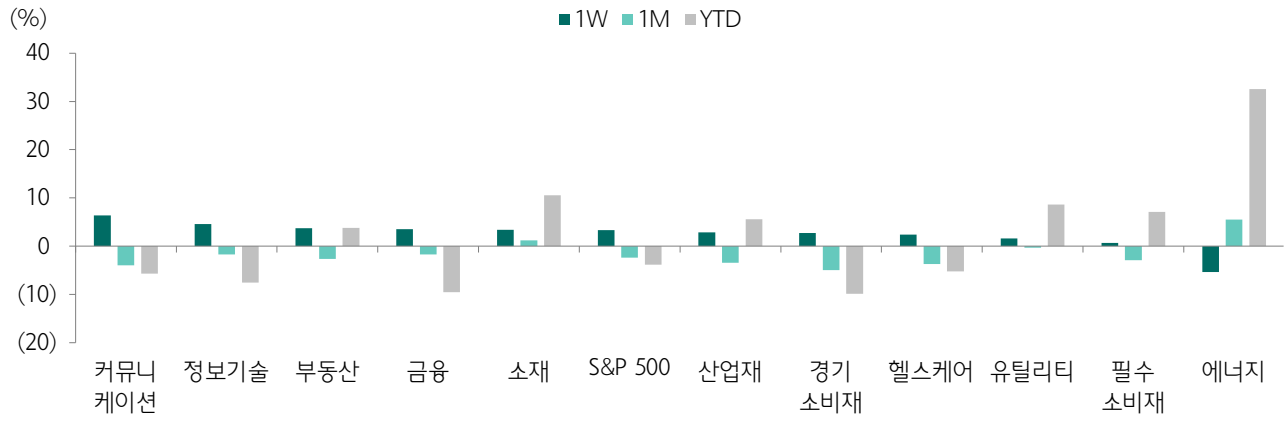
- 이번 주에도 시장참여자들은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에 주목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 관련 통제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시장참여자들에겐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부분의 이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으나 지난 3일 미군 F-15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됐다. 2명의 조종사 모두 구출됐다. 구출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들 포함 미군의 사상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F-15 격추와 관련해 이란과의 협상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상 타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꺾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현지시각 9일 PCE 가격지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 PCE가격지수 YoY 전망치는 +2.6%로 이전 발표치(+2.8%)보다 낮지만 MoM 예상치는 +0.32%로 이전치 +0.28% 대비 높다.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단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 PCE 가격지수 YoY 전망치는 +2.7%로 전월치 +2.5% 대비 높고, MoM 예상치는 +0.3%로 이전 발표치 +0.3%와 동일하다.
- 개인 소득 및 지출은 다소 강하게 나올 여지가 있다. 우리가 지난 자료에서 언급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세제 개편 영향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날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YoY 전망치는 +3.4%로 이전치 +2.4% 대비 높다. MoM 예상치는 +1%로 전월치 +0.3%를 상회한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YoY 컨센서스는 +2.7%, 전월치 +2.5%보다 강하고, MoM 전망치는 +0.3%, 2월 발표치(+0.3%)와 동일하다. 시장참여자들은 남아있는 관세 전가 효과와 유가 상승의 영향력을 가늠하려 할 것이다.
- FOMC 회의록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연준 위원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이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야기한 유가 상승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 지도 중요할 것이다. 유가 및 지정학적 위기가 경제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시적이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 상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는 4월 6일 3월 ISM 서비스업 PMI(예상치 54.8, 이전치 56.1), 7일 미국채 3년물, 6년물 입찰 / ADP 주간 고용 변화 / 2월 내구재 주문(MoM, -1%, 이전치 Flat) / 1분기 애틀랜타 연은 GDPNoW(예상치 1.6%, 이전치 1.6%), 8일 EIA 단기 에너지 전망/ 3월 뉴욕 연방은행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이전치 3.0%) / 2월 소비자 신용(예상치 11.4B, 이전치 8.05B) /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5.451M), 9일 미국채 10년물 입찰(이전치 4.217%) / 4분기 GDP(QoQ, 예상치 0.7%, 이전치 0.7%) /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예상치 YoY +2.6%/MoM +0.32%, 이전치 YoY +2.8%/MoM +0.28%) / 핵심 PCE 가격지수(예상치 YoY +3%/MoM+0.37%, 이전치 YoY+3.1%/이전치 +0.36%)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예상치 210,000건, 이전치 202,000 건), 10일 3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예상치 YoY +3.4/MoM +1%, 이전치 YoY +2.4%/MoM +0.3%) / 3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예상치 YoY +2.7%/MoM +0.3%, 이전치 YoY +2.5%/MoM +0.3%) /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예상치 52.1, 이전치 53.3) / 4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전치 3.8%) /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전치 3.2%) 등이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8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 / 제퍼슨 연준 위원(비둘기,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7일 LEVI, 8일 DAL / STZ / RPM / APLD, 9일 PGR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4/02)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6,582.7	0.1	3.4	-2.3	-5.2	-2.3	29.7	-3.8
나스닥	미국	21,879.2	0.2	4.4	-2.3	-7.1	-4.6	40.4	-5.9
다우	미국	46,504.7	-0.1	3.0	-2.1	-6.0	-0.4	21.4	-3.2
STOXX600	유럽	596.6	-0.2	3.7	-0.3	-1.4	4.8	25.9	0.7
KOSPI	한국	5,428.7	1.0	-3.8	-2.8	20.0	53.0	120.2	28.8
KOSDAQ	한국	1,048.2	-1.5	-7.5	-9.2	9.7	22.7	52.5	13.3
상해종합지수	중국	3,880.1	-1.0	0.1	-5.9	-5.0	-0.1	25.3	-2.2
심천종합지수	중국	2,498.4	-1.5	-1.7	-7.4	-4.7	-0.8	40.6	-1.3
항셍테크지수	홍콩	25,116.5	-0.7	0.7	-2.5	-3.9	-6.4	24.8	-2.0
TOPIX	일본	3,665.7	0.6	-1.0	-1.4	3.6	13.6	47.7	7.5
니케이 225	일본	53,729.1	1.1	-1.7	-3.4	2.3	12.1	59.1	6.7
니프티 50	인도	22,631.5	-0.4	-0.5	-7.4	-13.5	-9.8	-1.2	-13.4
Vietnam	베트남	1,676.7	-0.4	3.4	-5.2	-7.7	-1.1	38.5	-6.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4.02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커뮤니케이션: 알파벳 및 메타에 대한 강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 부동산: 10년물 금리 하락(-9.5bps) 긍정적
- 소재: 고유가 지속에 따른 ECC 기업들의 컨센서스 상향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에너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 상승 지속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이란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도 약세 요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3/31	**파월 "통화정책 관망 적절, 사모신용 리스크 면밀히 모니터링"** •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이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 속에서 "지켜보기 좋은 위치"라고 평가. 공급 충격에 대한 단기 대응 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복 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경계 필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0.5~1.0%p 높이는 일회성 요인으로 분석. 노동시장 둔화와 물가 상방 리스크가 병존해 정책 판단이 어려운 상황. 사모신용은 은행과의 연결성 중심으로 점검 중이며, 현재 시스템 리스크 확산 징후는 제한적.
3/31	**WTI, 배럴당 100달러 상회…전쟁 이후 첫 돌파** • WTI 5월물, 전일 대비 3.25% 상승한 배럴당 102.88달러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상회. 브렌트유 107.39달러(+2.07달러), 두바이유 128.51달러로 동반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 향 미사일 발사 및 홍해 차단 가능성이 추가 공급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며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4/1	**엔비디아, 마벨에 20억 달러 투자…AI 칩 생태계 확장** • 엔비디아, 마벨에 20억 달러 투자 및 지분 확보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 마벨(+10% 이상), 엔비디아(+5% 이상) 주가 동반 급등. 이번 투자로 맞춤형 AI 칩(ASIC) 설계 강자인 마벨과 협력해 반맞춤형(semi-custom) 칩 시장 영향력 확대. 마벨의 칩 기술과 엔비디아 NV링크 플랫폼 통합을 통해 고객이 GPU와 맞춤형 칩을 혼합 사용하더라도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구동 가능. 기존 잠재적 경쟁 관계였던 맞춤형 칩을 생태계 내로 흡수하며 시장 지배력 유지 및 TAM 확대 기대. 동시에 AI 네트워크 인프라 협력 강화 및 하이퍼스케일러 대상 경쟁력 제고 효과 전망.
4/1	**오픈AI, 기업가치 8,520억 달러 평가…1,220억 달러 투자 유치** • 오픈AI, 기업가치 8,52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총 1,22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아마존(500억 달러), 엔비디아·소프트뱅크(각 300억 달러) 등 주요 전략적 투자자 참여, 개인 투자자 대상 30억 달러 자금도 최초 확보. 현재 월 매출 20억 달러 수준으로 고성장 지속, 인터넷·모바일 시대 주요 기업 대비 약 4배 빠른 성장 속도 강조. 사용자 지표 역시 빠르게 확대되며 주간 활성 사용자 10억명 도달 기대. 한편 연내 IPO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르면 4분기 상장 전망
4/2	**인텔, 아일랜드 팹34 지분 재매입…CPU 중심 전략 강화** • 인텔, 아일랜드 팹34 JV 지분 49%를 142억 달러에 재매입하며 생산 수익 전면 확보. 해당 지분은 2024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아폴로에 112억 달러에 매각했던 물량으로, 재무 구조 개선 이후 전략적 재인수 단행. 팹34는 인텔4·인텔3 공정 기반 주요 CPU 제품 생산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공정 수익 직접 반영 구조로 전환. 자금은 보유 현금과 약 65억 달러 신규 부채로 조달, EPS 및 신용도 개선 기대.
4/4	**미국 3월 고용 확산지수 급등** • 미국 3월 비농업 고용 확산지수 56.8로 전월 대비 7.6p 상승하며 2년 3개월 만 최고치 기록, 고용 증가 업종이 감소 업종을 크게 상회. 헬스케어(+7.64만명)는 파업 종료 영향으로 전월 감소에서 급반등, 건설·여가·접객·운송 등도 한파 영향 해소로 동반 회복. 제조업 고용(+1.5만명) 역시 2023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 기록하며 이례적 개선. 다만 해당 지표는 전쟁 초기 영향만 일부 반영된 수준으로,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 필요.
4/6	**트럼프, 협상 시한 연장…불응 시 인프라 전면 타격 경고** •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기존 6일에서 7일로 하루 연장하며 외교적 해결 시도 지속.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요구 불이행 시 발전소·교량 등 핵심 인프라 전면 타격 경고. 협상 유예 기간 동안 군사 행동은 제한하되, 시한 이후 강경 대응 가능성 재차 강조. 현재 협상 진전 여부는 불확실한 가운데, 시한 도래가 대이란 군사작전의 주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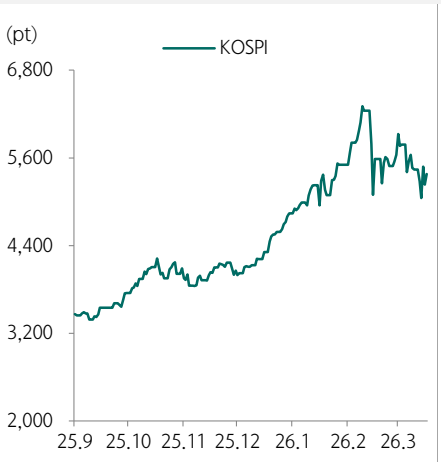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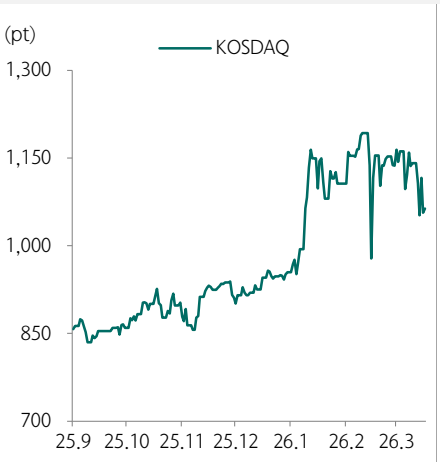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PRGS	NKE MKC FDS TE	CAG LW	AYI	
6	**7**	**8**	**9**	**10**
	LEVI	DAL STZ RPM APLD	PGR	BLK
13	**14**	**15**	**16**	**17**
GS	JPM JNJ WFC C KMX	ASML BAC MS	NFLX BX FCX	PG
20	**21**	**22**	**23**	**24**
SCHW	GE UNH VZ ISRG LMT DHR NOC UAL	PM GEV IBM T CME KMI ELV	AMZN MA CAT INTC MCD AXP KLAC HON NEM WDC FSLR AAL	XOM CVX ABBV
27	**28**	**29**	**30**	
KO CDNS AMP	GOOGL MSFT TSLA V RTX PEP NEE TXN	META LRCX AMGN TMO BA NOW EQIX STX AMT F CMG	AAPL LLY MRK LIN COP SHOP BMY PH HWM PWR REGN R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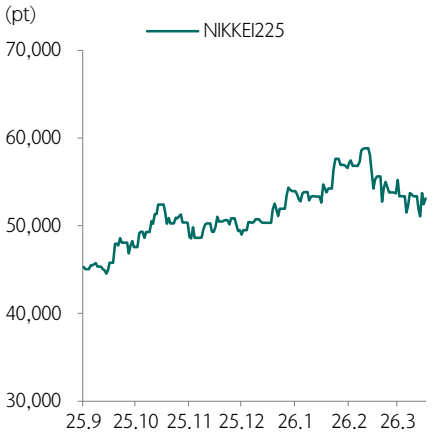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4/6(월)	• 3월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예상치 54.8, 이전치 56.1)
4/7(화)	• 2월 소비자신용지수 • 3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전치 3.0%)
4/8(수)	• FOMC 3월 회의록 공개
4/9(목)	• 2월 PCE(이전치 MoM 0.4%, YoY 2.8%), PCE 근원(이전치 MoM 0.4%, YoY 3.1%) • 4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T]
4/10(금)	• 4월 CPI YoY (예상치 3.4%, 이전치 2.4%) • 4월 CPI 근원 YoY (예상치 2.7%, 이전치 2.5%) • 4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 4월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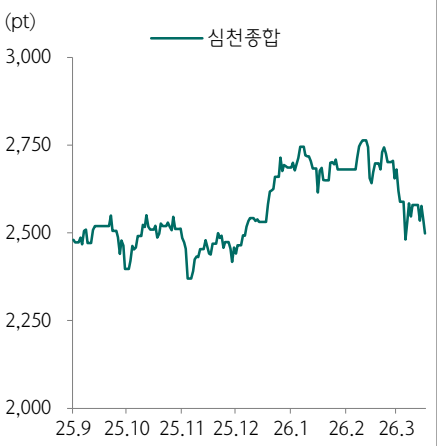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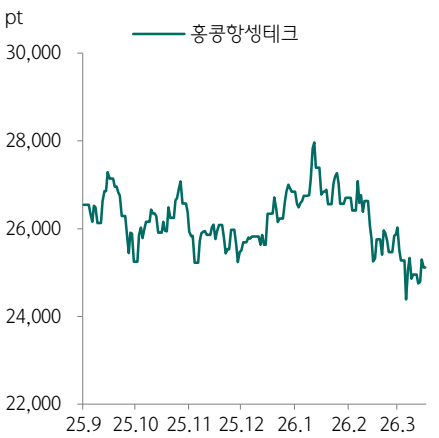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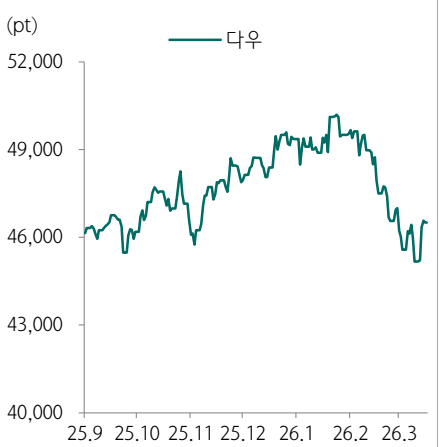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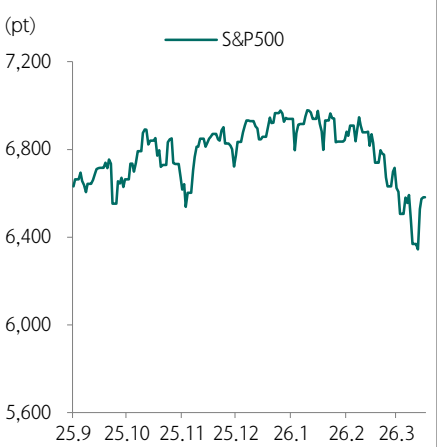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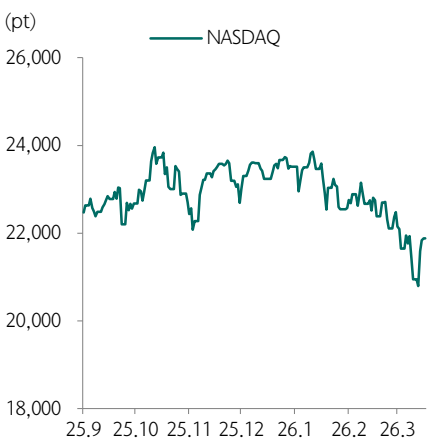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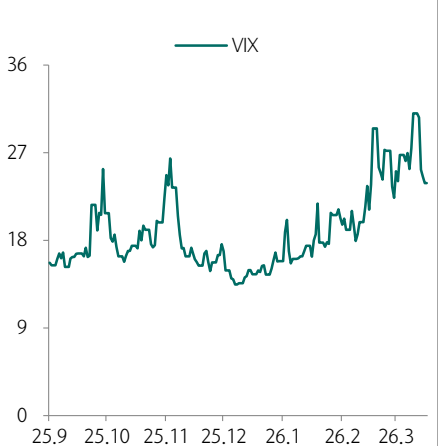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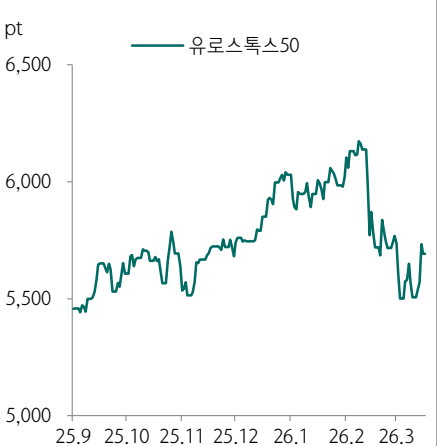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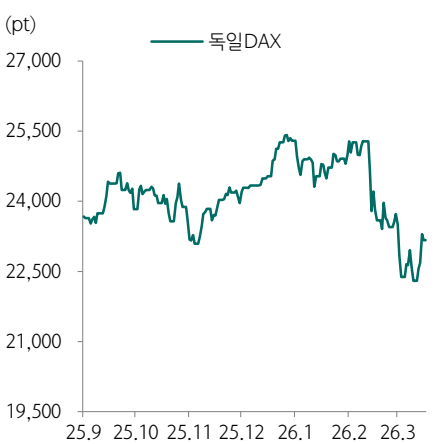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S&P5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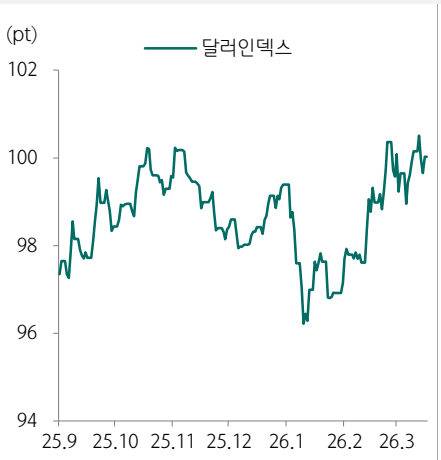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VIX
36
27
18
9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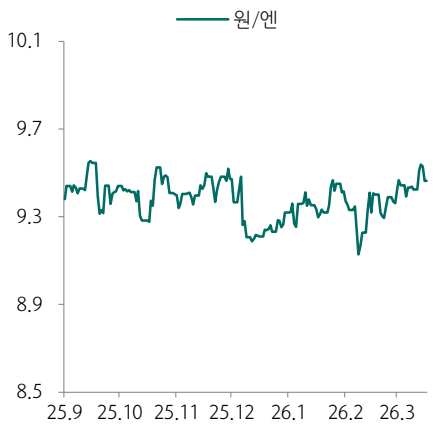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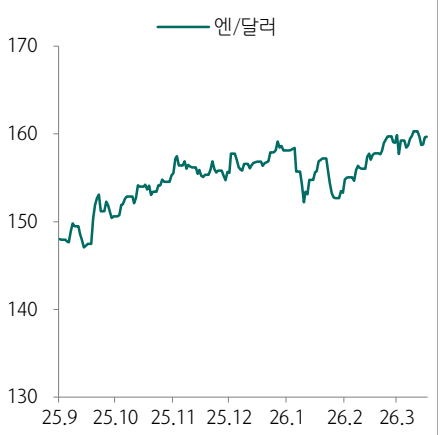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19,5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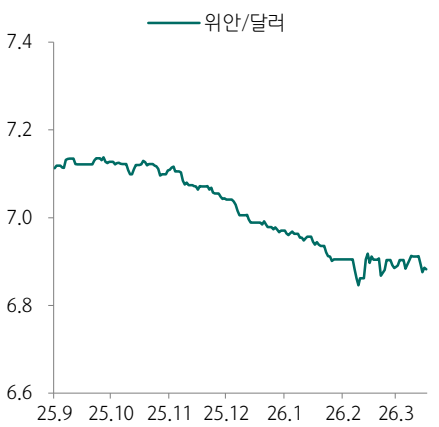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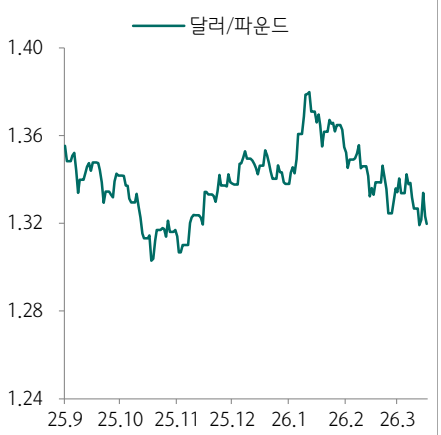
원/달러
1,540
1,470
1,400
1,330
1,2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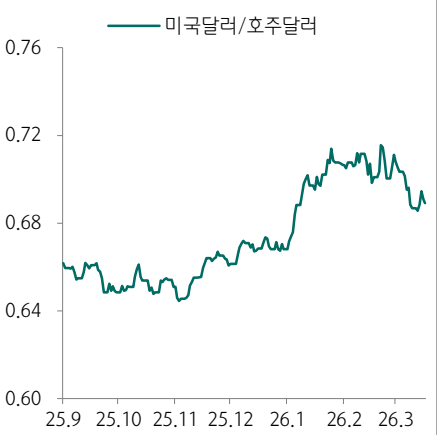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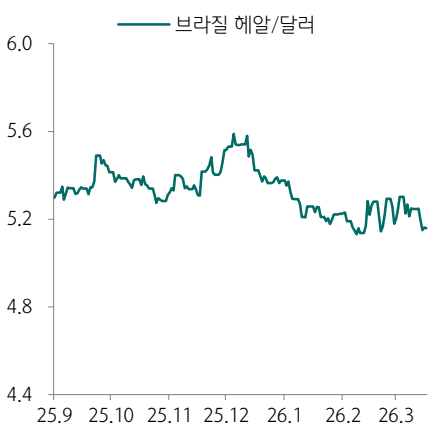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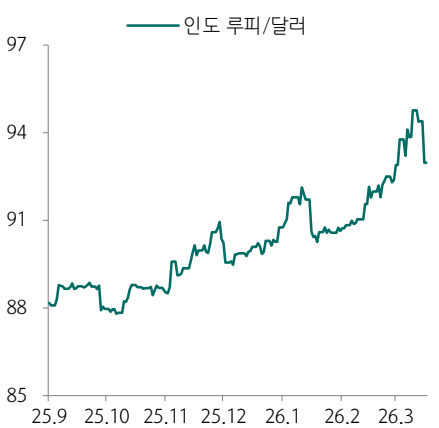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미국달러/호주달러
0.76
0.72
0.68
0.64
0.6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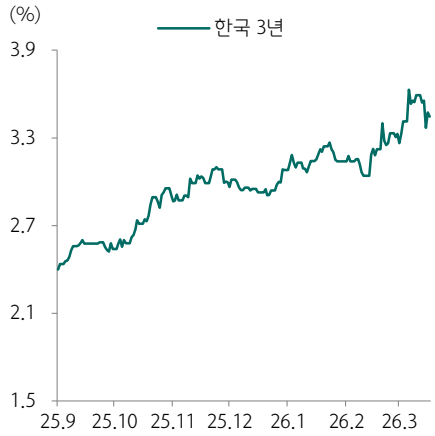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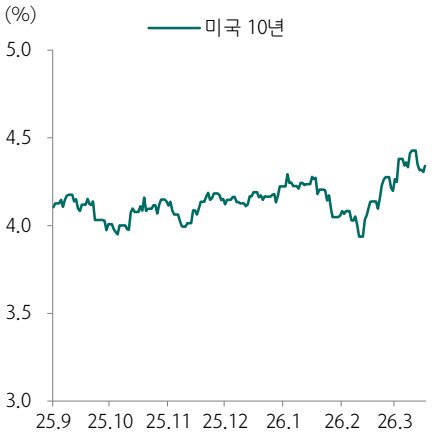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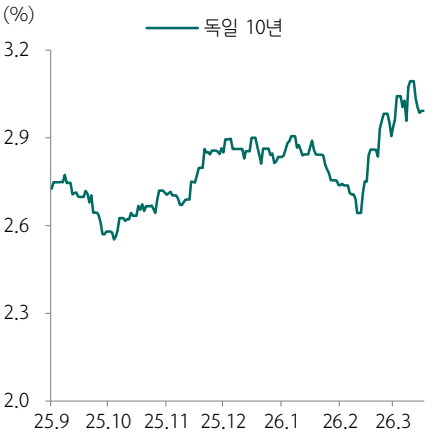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4
78
72
66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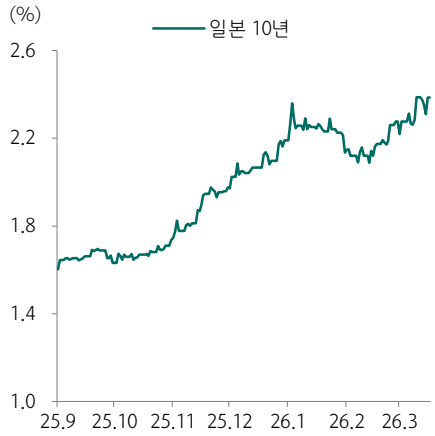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7
94
91
88
8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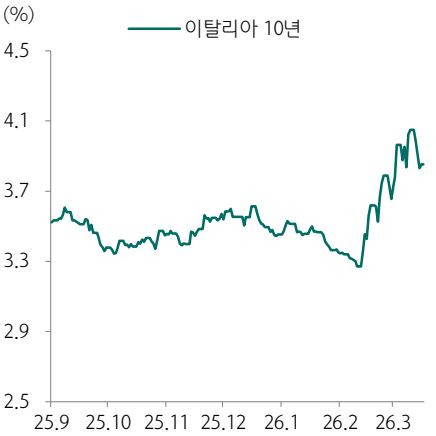

(%)
한국 3년
3.9
3.3
2.7
2.1
1.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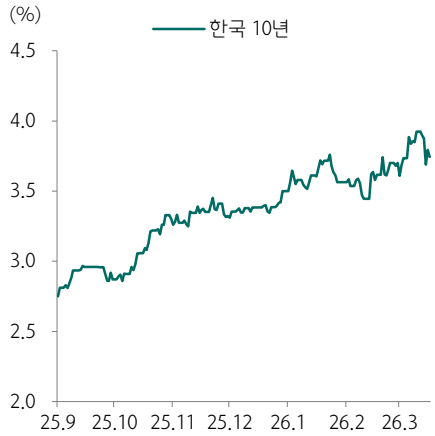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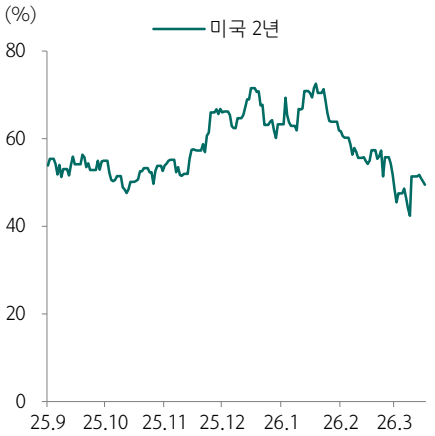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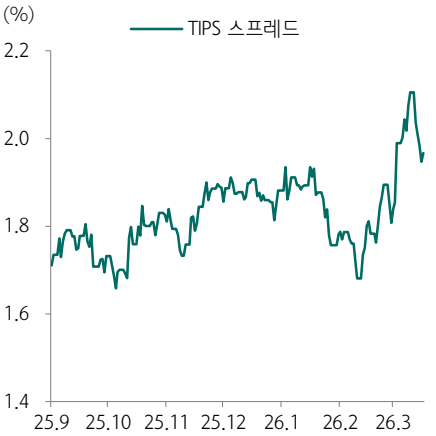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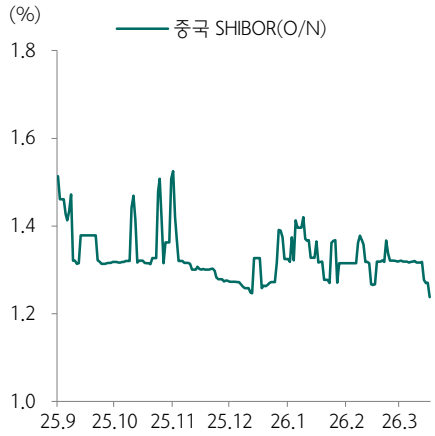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9
3.6
3.3
3.0
2.7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이탈리아 10년
4.5
4.1
3.7
3.3
2.9
2.5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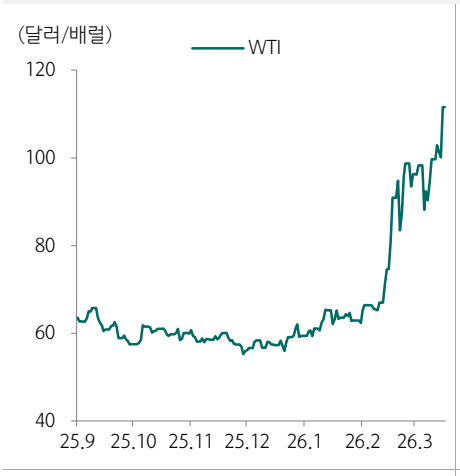

(%)
한국 10년
4.5
4.0
3.5
3.0
2.5
2.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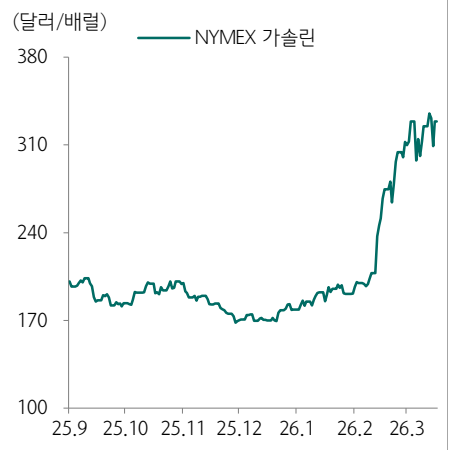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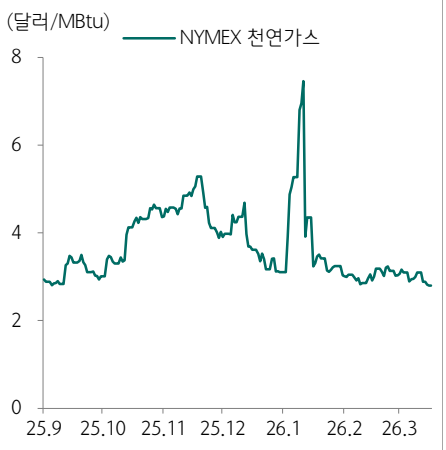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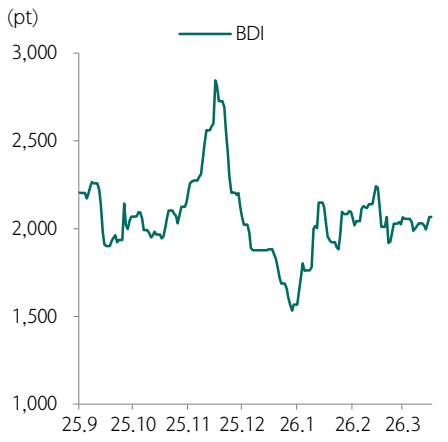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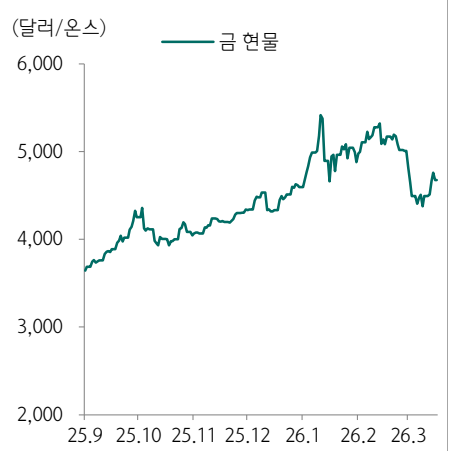
(달러/배럴)
브렌트유
140
120
100
80
6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배럴)
두바이유
130
100
70
4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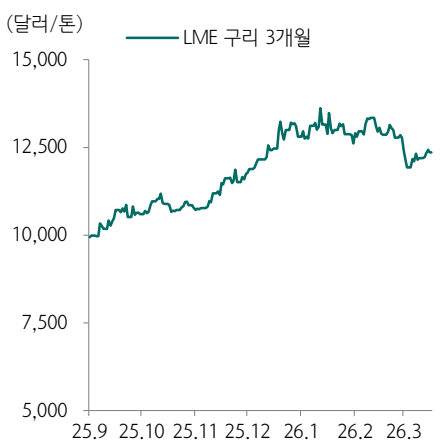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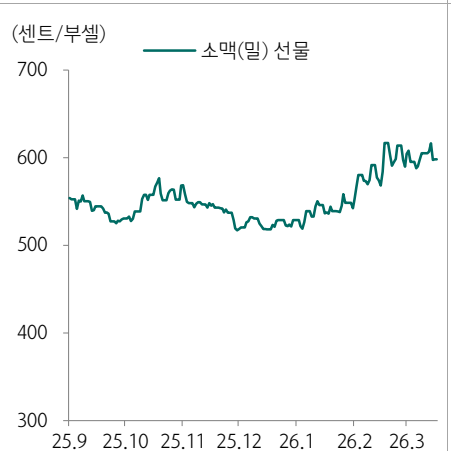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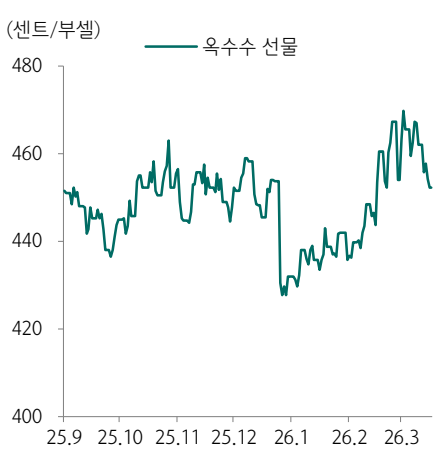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480
460
440
420
400
25.9 25.10 25.11 25.12 26.1 26.2 26.3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4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